

수술 잘하는 병원

입 안으로 로봇 팔 넣어
상처 없이 암 제거

두경부암 수술 후 기능손실 최소화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

전문진료분야
두경부종양, 갑상선질환, 구강질환, 음성장애,
비과질환, 편도질환(편도수술)

문의 02.440.73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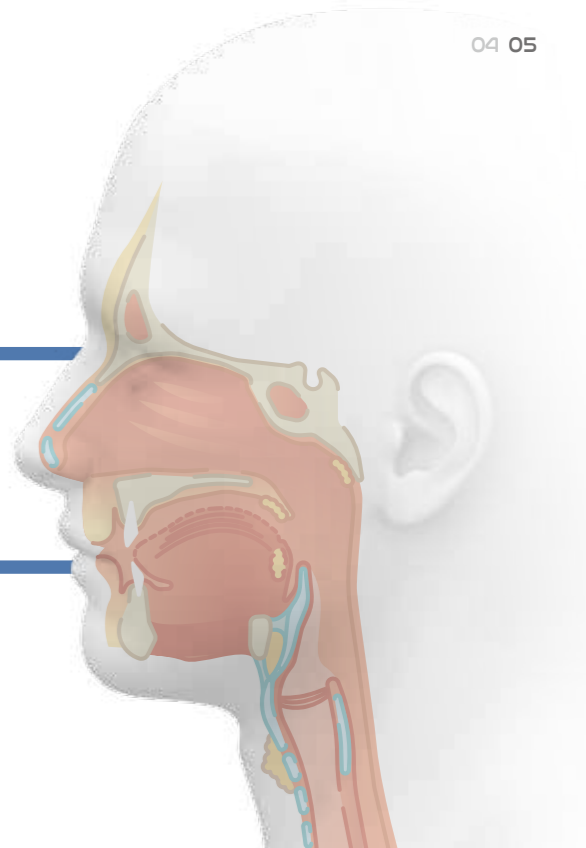
두경부는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의 얼굴과 목 부위를 말한다. 두경부암은 눈, 뇌, 귀, 식도를 제외한 두경부 영역(구강·구인두·후두·하인두·비인두·갑상선·침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암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두경부암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큼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 발병률이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두경부암 환자는 2010년 1만 3256명에서 지난해 1만 7026명으로 28.4% 증가했다.

경구강 로봇수술은 입 안으로 로봇 내시경을 넣어 목 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수술 부위를 확대·관찰**하면서 로봇 팔에 달린 수술 기구로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두경부암

HEAD AND NECK CANCER

두경부암의 치료는 질병의 완치뿐만 아니라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과 미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먹고, 숨쉬고, 말하는 부위에 생기는 암

두경부암은 대부분 두경부 안쪽 점막을 덮고 있는 편평세포에서 시작된다. 두경부는 먹고, 숨 쉬고, 말하는 기능과 밀접히 관련된 기관으로, 두경부암의 치료는 질병의 완치뿐만 아니라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과 미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경부암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이비인후과 의사의 문진을 거쳐 각종 내시경을 이용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다. 내시경은 비인두 내시경, 후두 내시경 등이 있다. 이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면 CT나 MRI, PET-CT 등 영상의학, 핵의학 검사와 세침 흡입 검사, 조직 생검을 진행한다. HPV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가 예후 및 치료에 중요해 HPV 바이러스 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하인두암의 경우 식도의 침범 여부가 중요하므로 위식도 내시경을 시행한다.

● 암 제거와 기능 보존까지 고려하는 고난도 수술

두경부암 치료법에는 암의 종류와 위치, 병기에 따라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단독 혹은 병합 치료를 시행한다. 종양이 원발 부위에 국한되거나 경부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에는 수술적 제거술이나 방사선 요법이 추천된다. 질병이 진행되어 원발 부위를 침범했거나 경부림프절로 전이가 있으면, 기능 보존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요법이 추천된다. 두경부암 수술은 영역의 특성상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고난도 수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수술 범위 설정과 재건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먹고 말하는데 필요한 장기를 최대한 보존해 효과적인 암 치료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술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내시경 또는 로봇수술 기술이 발달해 입안으로 접근하여 수술할 수 있는 경구강 수술의 적응증이 확대된 것이다.

● 로봇수술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정상 기관 보존

경구강 로봇수술은 입 안으로 로봇 내시경을 넣어 목 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수술 부위를 확대하여 관찰하면서 로봇 팔에 달린 수술 기구로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야에서 중요한 정상 기관을 보존하고, 좁은 공간에서 수술할 수 있으며 목으로 보이게 되는 흉터를 없애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경부암에서 로봇수술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림프절 침범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암 환자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 음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종종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암이 혀뿌리, 편도 등 인후두에 위치한 경우 좁은 부위에서 암종을 보면서 수술하기 위해 기존에는 목에 절개를 하거나 아래 턱뼈를 절개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로봇수술을 통해 절개 없이 구강 내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